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결과

2016. 11. 25(금)
서울 트레이드타워 51F 대회의실

2016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1)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 ~ 17:00
- 2) 장 소 : 서울 트레이드타워 51F 대회의실
- 3) 주 최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 4) 참가자 : 81명 ※명단 별첨
- 5)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개회안내 및 인사	
14:10~15:10 (60분)	세션1 - 일본의 불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 상 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15:10~15:30 (20분)	휴식	
15:30~16:30 (60분)	세션2 - 재미있고 엉뚱하게 경영론 (30분) - 도요타 혼 (30분)	오 태 헌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16:30~17:00 (30분)	질의응답	
17:00~	사업 안내 및 폐회	

2. 개최성과 및 후속조치

- 우리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 저성장을 先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일본 굴지의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와 호리바제작소의 경영방침을 설명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합리적인 경영과 직업 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줌

-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 일본이 불황기에도 대외자산이 늘어난 배경(대외 순자산과 해외소득, 경상수지와 소득수지, 해외현지 생산비율) 설명과 함께 한일의 기업비교(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인건비, 연구개발비)와 근로자비교(취업률, 노동시간, 사망률)를 통해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를 채용, 수요가 있는 해외진출 확대로 근로자 동반진출

- **아베노믹스의 평가(절반의 성공)와 저성장시대에서의 2%대 성장유지의 의미를 설명**

* 후발선진국으로서 잃어버린 20년의 활용과 보완 필요

* 지속성장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 아베정권은 첫 실패경험이 자산이 됨

-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주요 일본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고다와리(拘り)”와 도요타자동차의 현장을 위한 제품생산, 호리바제작소의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지향할 경영방침을 제시**

■ 회원사 간담회를 통한 **협회활동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협회 팸플릿 배부 등을 통해 협회 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회원사유치 활동

■ 한국무역협회와의 공동개최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예산절감 (회의장 대여비 절감)
- 차기 세미나 개최 시에도 유관기관과의 공동개최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요구(희망)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향후 회원사 간담회의 주제 방향 모색**

- 경제·산업동향, 기업성공사례, 일본시장 진출, IT 관련 주제 등

3. 개최인사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

- 오늘 세미나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우리나라에도 장기불황의 우려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일본의 장기불황 대처사례와 일본식 기업경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계로서는 **글로벌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개최
- **전 세계적불황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앞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사가 되고있는 가운데, 수출주도 성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음
- 강연자 소개
-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의 **기업경영과 글로벌시장 진출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한국무역협회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함

4. 주요 발표내용

(1) 일본의 불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엔화절상과 실업률의 관계**
 - 일본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값싼 노동력 및 자원 확보 등을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이 아닌, **수요가 있는 곳에 진출** (기업의 약 60%가 해외에서 현지생산)
 - 일본기업은 라이벌이 없던 90년대초에 많이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재투자, 일본이라는 자국 브랜드가치를 상승
 - 외부충격 및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국의 통화는 절하되나, 엔화는 **해외자산이 일본 국내로 리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오히려 절상**
 - 해외자산이 많다보니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폐해도 발생**
- 일본의 사회보장성 지출과 소비세
 - 2014년 소비세를 8%로 상승시킨 원인으로, 금융권에 저축을 많이하는 일본인의 특성상 **가계저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정부채권을 사왔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한계라고 판단했기 때문**

- 일본은 사회보장성 지출은 많으나 조세수입이 적은 국가임. 이에 **新 아베노믹스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의료·요양보호 관련비용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소비세를 10%로 상승**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엔화절하·경기부양→기업 이익발생→고용확대→임금인상·소비촉진→투자증가·물가상승”의 수순
 - 현재 **고용확대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임금인상은 몇몇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비 역시 기대했던 것 만큼 촉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음**

(2) 일본기업의 경쟁력 ~ 도요타자동차, 호리바제작소

- “고다와리(拘り)”에 대하여
 - 일본의 유명기업을 보면 무엇이든 하나의 법칙을 세워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함. 이를 일본어로 “**고다와리(拘り)**”라고 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의지를 나타냄
 - 이 고다와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Best Venture기업 100을 선정할 시에도 심사기준에 “고다와리를 가질 것”이라고 명기할 정도로 일본기업은 고다와리를 지닌 기업을 높게 평가
- 도요타자동차의 고다와리
 - 복지차량 개발과정 : 실제 장애인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 의견을 들어 차량을 개선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현장을 관찰하여 스스로 가설을 세울 것**
 - 자기자신의 판단축을 명확히 세울 것
 - 네비게이션의 끝없는 개선 : 세계최초로 차량에 브라운관 네비게이션을 탑재하였으나, 차량이 바다 속을 달리는 등 오작동이 많아 클레임이 빗발침.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통해 현재에 네비게이션을 만드는 등, **고생을 고생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에 몰입**
 -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교육” :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량품은 없어지지 않음

- 호리바제작소의 고다와리
 - 경영개론 :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경영자의 의무이며 경영관리의 본질임**
 - 직원편(방법론)① : 직원에게 요구할 것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급여의 원천임을 직원이 납득하면 일하는 방법도 자연히 바뀔
 - 직원편(방법론)② : 임원회의는 영어로 진행. **중소기업이야말로 해외로 진출해야 함**
 - 직원편(방법론)③ : 애사심이 아닌, 이기심을 갖고 일을 해야 재미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음
 - 경영자편(방법론)① : 거래처를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반드시 행복해짐
 - 경영자편(방법론)② : 사장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책임의 무게”가 일반직원과 다르기 때문. 당연히 많은 보수를 받을 것
 - 경영자편(방법론)③ : 임원은 60세까지, 사장은 50세면 교체
- 도요타자동차와 호리바제작소의 공통점
 - “기본에 충실한 차”를 만드는 도요타자동차와 “인간본위 경영”을 추구하는 호리바제작소, 두 기업 모두 타사가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할 것을 올바르게 지키고 개선**

5. 주요 질의응답 내용

- 호리바제작소는 사장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하는데, 두 강연자의 의견은?
 - 오태헌 교수 : “책임의 무게”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임
 - 박상준 교수 : 임원은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이 큼. 미국처럼 일반 사원과 임원월급 차이가 크다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미국처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지?
 - 박상준 교수 : 일본의 경우 기업 부채비율이 300~400%에 육박하였고 부동산경기도 심한 버블이 있었음. 지금 한국기업은 평균 120%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고, 저성장이라고 하지만 **일본처럼 0~1%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최근 일본 내에서는 잃어버린 20년 사이에 국가와 기업의 부채가 크게 Down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음
- 실제 우리는 2~3%대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0%대의 성장을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2~3%의 성장이라는 것은 낮은 성장률이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는 지금의 2~3% 성장률을 기준으로 잡고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아베노믹스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 박상준 교수 : 아베총리는 처음 총리를 할 때만 해도 국민들 선호도가 낮았음. 그러나 두 번째 총리를 하는 이번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변해서 스마트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음. 호불호는 갈리지만 기업들의 이윤확대에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함
 - 현재 **고용확대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임금인상은 몇몇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비 역시 기대했던 것 만큼 촉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음**
 - 이종윤 부회장 : 우리는 **저성장극복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임.**
 - 한국의 경우 IMF때 실패를 경험한 관료들이 이명박 정권 때 요직에서 활약을 했는데, IMF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미국발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큰 위기없이 넘어갈 수 있었음. 아베정권 역시 1차 아베 내각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 2차 내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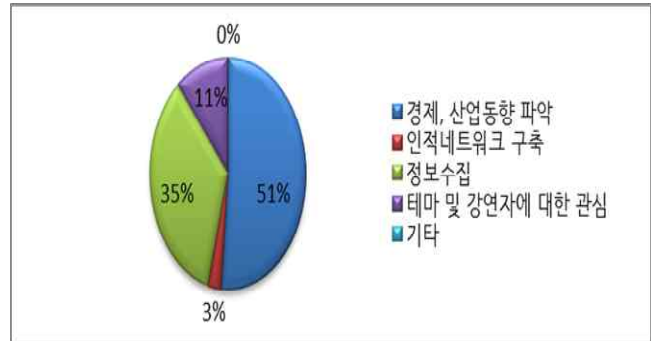
- * 별 첨
1. 일본시장전문가 초청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1부.
 2. 일본시장전문가 초청 세미나 참석자 명단 1부.
 3. 일본시장전문가 초청 세미나 사진 1부. 끝.

별첨 1.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간담회 참가자 ◇ 응답수 : 48명

문1) 세미나 참가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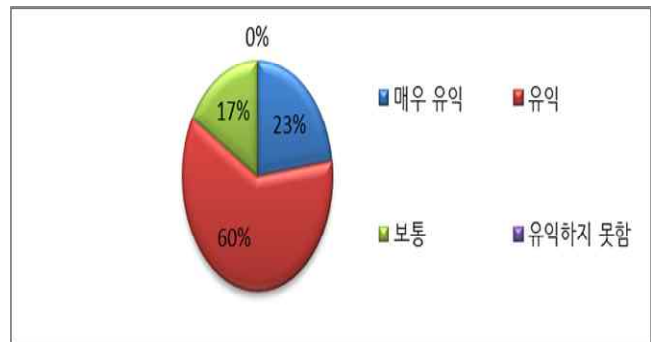
1	경제, 산업동향 파악	37
2	인적네트워크 구축	2
3	정보수집	25
4	테마 및 강연자에 대한 관심	8
5	기타	0



문2) 세미나 발표내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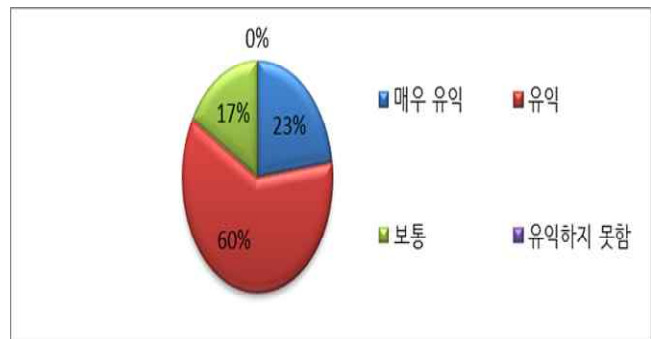
① 박상준 와세다대학 교수
-일본의 불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매우 유익	11
2	유익	29
3	보통	8
4	유익하지 못함	0



②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일본기업의 경쟁력

1	매우 유익	13
2	유익	25
3	보통	9
4	유익하지 못함	1



문3) 개선, 보완점

1	주제발표 내용	6
2	발표자 섭외	3
3	활발한 논의	9
4	특별히 없음	16
5	기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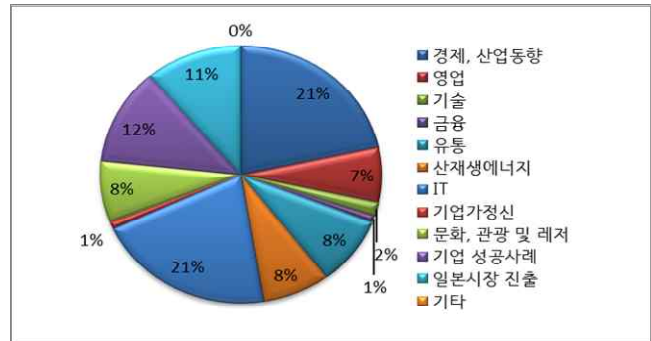


- 발표시간이 짧음(6명)

- 참석자가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로
기업위주의 경제동향 강연이었으면 하는 아쉬움(3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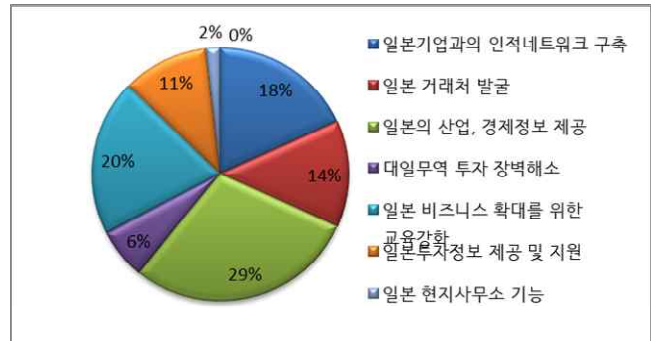
문4) 향후 필요한 발표주제(복수응답)

1	경제, 산업동향	25
2	영업	8
3	기술	2
4	금융	1
5	유통	10
6	산재생에너지	9
7	IT	24
8	기업가정신	1
9	문화, 관광 및 레저	9
10	기업 성공사례	14
11	일본시장 진출	13
12	기타	0



문5) 우리정부/협회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사항

1	일본기업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20
2	일본 거래처 발굴	15
3	일본의 산업, 경제정보 제공	32
4	대일무역 투자 장벽해소	7
5	일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교육강화	22
6	일본투자정보 제공 및 지원	12
7	일본 현지사무소 기능	2
8	기타	0



별첨 2. 참석자 명단

NO.	회사명	직책	이름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1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이종윤
2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박상준
3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오태헌
4	동화엔텍	회장	김강희
5	화인	대표이사	이상준
6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정준명
7	교세이국제특허정보	대표	박남숙
8	대구경북경제자유무역청	전문위원	최종섭
9	배재대학교	교수	임대영
10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양평
11	삼성물산	차장	이연희
12	서울대학교	교수	안중호
13	한국무역협회 대전지부	자문위원	이홍재
1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실장	유승훈
1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임연구원	후카호리스즈카
16	한일학생미래회의	대학생	이동호
17	한일학생미래회의	대학생	제정원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18	가야	고문	전 민
19	광성계측기	대표	임병천
20	나오텍	대표이사	김영기
21	대양에스티에스	사장	정성원
22	두하	대표	안희철
23	마흔코리아	대표	이정화
24	마흔코리아	팀장	강보영
25	미즈호은행	부장	신혜정
26	미즈호은행	부부장	김보라
27	바니비	사장	이재훈
28	비즈니스앤소셜	대표이사	이문용
29	삼익악기		김현규
30	서광금속	대표이사	서우란
31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
32	성남산업진흥재단	실장	김해정
33	성우이넥스	대표이사	최성환
34	수석정밀	부사장	신용수
35	승일	과장	박노훈
36	승일	과장	현성우
37	에스디비	회장	김성길
38	엘엔케이코리아	이사	이도경
39	영산테크노	대표	김영근
40	유앤아이	팀원	민원선

NO.	회사명	직책	이름
41	유엔아이	감사	민형기
42	울촌	부사장	원종열
43	을지전기	상무이사	백영기
44	을지전기	총괄이사	백상기
45	제니스텍	이사	김서연
46	제니스텍	팀원	오준우
47	파나소닉코리아	대표이사	노운하
48	하나코퍼레이션	이사	임석예
49	한국이엠케이		양석진
50	호성산업	대표	이학규
51	CSA코스믹(舊 젠트로)	사장	박용태
52	CSA코스믹(舊 젠트로)	상무	임동휘
53	CSA코스믹(舊 젠트로)	대리	정대섭
54	HK	상무	이향서
55	Screen HD Korea	사장	박재완
<비회원사>			
56	미래경영원	대표이사	허순영
57	바이오젠	고문	백영빈
58	베스텍	전무	박승엽
59	베스텍	이사	조창주
60	삼영시스템	고문	이근수
61	삼정무역	CEO	반재봉
62	실버넷미팅	대표	이병철
63	용남전자	기술고문	조용범
64	우신화학	대표이사	채제욱
65	코람코자산신탁	부장	박중현
66	타파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윤근
67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김세원
68	혜원산업	부사장	남의식
69	3C컨설팅	대표이사	정수영
70	JB코리아	사장	박병하
71	KSP Corp.	사장	김성환
72	PWC컨설팅	상무보	양혜연
73	TTS	기술고문	임익철
74	YDKIM인터내셔널	기획매니저	김홍석
75	YDKIM인터내셔널	기획매니저	김홍배
<사무국>			
76	한국무역협회	실장	김승욱
77	한국무역협회	차장	박강표
78	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	조덕묘
79	한일경제협회	부장	김정호
80	한일경제협회	대리	서광현
81	한일경제협회	연구원	이유경
총 참석 인원			81

별첨 3. 개최 사진



<개회인사하는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전 체 전 경>



<강연하는 박상준 와세다대학 교수>



<강연하는 오테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